"바다 위 발전기 설치, 불확실성 커"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계획 보완 용역 등서
3~7년 이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도입 검토 시사
전문가 '시기상조론' 제기… "연구개발 초점 둬야"

제주도가 현재 연구개발 단계인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도입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시기상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이하 CFI 2030)을 수정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 CFI 2030계획 수정 보완 용역'의 중간 자료를 보면, 단계별 목표달성 전략에서 2025년까지 고정식 해상풍력 중심으로 보급하다가 2026년부터는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부유식 해상풍력 도입을 전제로 계산해 CFI 2030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으며, 해상에너지 잠재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심 50m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9월 수립한 '2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2018-2022)'에서도 오는 2022년까지 육상에서 약 10㎞ 떨어진 해상에 500㎿ 규모의 부유식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자는 계획을 언급했다.

여러 계획으로 볼 때 제주도는 빠르면 3년, 늦어도 7년 이내 부유식 해상풍력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월에는 친환경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울산시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연구단계로 실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고, 발전기가 수심 50m 이상 되는 깊은 바다 위로 띄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연안에서 원거리에 위치해 고정식 또는 육상보다 우수한 바람자원을 얻을 수 있고 소음과 전자파 등의 영향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등이 불확실해 제주 도입이 이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종철 제주대 풍력공학부 교수는 "확실한 검증 과정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사업용보다 연구개발 또는 실증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은 검토 단계"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증단지 조성 의향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 확정되면 산자부 공모에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지난달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제주 4·3 배상적 정의와 화해'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고완순 할머니의 증언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사진=세계섬학회 제공

"두려웠던 미군… 간접 책임 있어"

미국서 첫 증언 나선 4·3 생존자

펜실베이니아대 컨퍼런스서
고완순씨 등 美 정부 향해
"피해 치유 나서야" 촉구

제주4·3 피해마을 체험자의 증언이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이를 통한 4·3의 인권과 배상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세계섬학회는 지난달 29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제주 4·3 배상적 정의와 화해'의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피해마을 체험자들의 증언이 처음으로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다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섬학회에 따르면 고완순 할머니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미군정시대 북촌리 마을에서의 미군 대면 상황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두려움을 사실적으로 증언했고, 이에 따른 미국정부가 피해마을에 대한 치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홍춘호 할머니는 1948년 가을 이후 한국정부의 강경 진압 정책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처절한 상황을 증언, 당시 수수방관한 미군정책의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우일 주교는 기조강연에서 4·3 수형인의 인권, 유족의 인권, 희생자 후손의 기억과 삶 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재조명했다.

이를 통해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미연구소는 두 할머니의 증언과 미국 언론인의 동의를 계기로 4·3 치유에 대한 미국정부의 후원을 받는 공동연구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미국정부나 의회에 서한과 기고를 통해 이를 실행하는 방안을 찾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제주대 학생대표는 1일 미의회를 방문해 '제주4·3 화해법' 발의를 위한 세계대학생 1만명 청원 서명부와 2020년 3월 제주방문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뛰는 공시지가에 "내려달라" 민원 폭주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서귀포시 2014년 502건서
지난해 1276건으로 증가

이의 신청 98% 하향 요구
시민들 세금 부담 호소

제주지역 땅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증가하는 세금 부담에 개별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책정의 기준자료로, 제주의 경우 2015년부터 전국평균 상승률보다 3~4배 이상 폭등하면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탓이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2014년 502건에서 2015년 942건, 2016년 1018건, 2017년 1164건, 2018년에는 1276건으로 늘었다.

이같은 이의신청 증가는 2015년 서귀포시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12.18%로 전국(4.63%)보다 크게 높았고, 2016년 25.88%(전국 5.08%), 2017년 19.16%(전국 5.34%), 2018년 18.70%(6.28%)로 4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다.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하향 요구로 2017년 전체의 86.3%, 2018년에는 97.8%를 차지했다.

제주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당분간은 지속적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지가 현실화정책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7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제주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전국 최저수준인 40%대로 추산되고 있어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국토부에 개별공시지가의 점진적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구유입 등으로 급등한 실거래가 대비 반영률이 전국 최저수준이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동문시장 야시장 더 풍성해진다

행안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제주시, 프로그램 개발 추진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이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결과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을 포함한 전국의 5개 시장이 야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먹거리 외 야시장 내 고객편의시설 개선과 공연·축제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야시장 성과분석 용역 결과 방문객 개선요구 사항으로 편의시설 확충(39.3%), 다양한 행사 필요(15.6%), 홍보 강화 필요(10.4% 등)이 제시됐다.

제주시는 또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총 32개 매대 중 현재 비어있는 7개소 운영자를 5월 중으로 서류심사 및 품평회를 거쳐 추가 선발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대 운영자 충원과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문재래시장 야시장이 제주의 야간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종자기능사 자격증반 운영

제주도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일까지 청년 창업농과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종자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종자, 작물육종, 작물재배, 병해충 등 전문 농업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종자기능사는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작물의 채종과 배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증이다. 농업기술센터는 5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8회 과정으로 청년 창업농의 역량강화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종자기능사 자격증 필기대비반을 운영한다. 문의 760-7723.

표성준기자

"제주 갈치 싸게 맛보세요"
서귀포 은갈치축제 3~5일

제주 명물 은갈치를 테마로 한 축제가 이번 주말 서귀포에서 선보인다. 서귀포수협과 서귀포은갈치축제위원회(위원장 김미자)는 '제2회 서귀포은갈치축제'를 3~5일 사흘간 서귀포항과 자구리공원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갈치를 낚는 어구인 주낙 던지기와 갈치 손질왕, 특별한 경매, 갈치 요리비법 전수관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은갈치 가요제, 해녀 태왁수영대회 등 경연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갈치팽이대회(베이블레이드대회), 페이스페인팅, 갈치타투스티커 붙이기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또 축제기간 은갈치를 시중보다 10~50% 할인(일부 품목·수량 한정)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할인 행사도 선보인다.

문미숙기자

인문도시 지원 사업 '제주, 올레길 인문학코스를 걷다!'

인문체험 Ⅳ, 표류지 답사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에서는 인문도시 지원 사업 '제주, 올레길 인문학코스를 걷다!'의 일환으로 **인문체험 4, 표류지 답사**를 진행합니다. **제주지역 표류의 역사적 기록과 현장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답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답사 일시 및 모집 인원

일 시	대 상	모집 인원	장 소
2019. 5. 11.(토) 9:50~16:50	제주도민 누구나	30명 (선착순 모집)	애월읍 한담리~곽지리 해변 용수포구 일대 신도 2리 위령비 등

2.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19. 4. 29.(월) ~ 2019. 5. 7.(화)**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전자우편(kwonssong@jejunu.ac.kr)으로 접수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누리집(http://humanism.jejunu.ac.kr) 참조

3. 집결 및 해산 장소
- 제주대학교 정문

4. 답사 해설
- 강문종 교수님(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5. 기 타
- 다과, 기념품, 점심, 자료집 무료 제공
- 여행자 보험 가입

6. 문 의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064) 754-2333)

7. 세부 일정

시간	세부 일정	비 고
9:50~10:00	집결, 인원 확인	제주대학교 정문
10:00~10:50	이동	
10:50~11:50	장한철의 「표해록」 유적 답사	애월읍 한담리~곽지리 해변
11:50~13:10	점심 식사, 이동	
13:10~14:30	김대건 신부 표착 기념관 및 차귀도 해안 답사	용수포구 일대
14:30~14:50	이동	
14:50~15:50	하멜 표류지 답사	신도2리 위령비
15:50~16:50	이동, 해산	제주대학교 정문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도시 사업단
후원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제2회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래 신재생에너지 현장 체험 및 퀴즈경연대회』 참가 공모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제주도내 초등3-5학년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장 체험 및 퀴즈경연대회 참가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2019. 5. 2.(목)-5. 7.(화)까지(6일간)
□ **체험 및 퀴즈경연대회**: 2019년 6월 1일(토)09:00-16:00
□ **체험장소:** 행원 신재생에너지홍보관(현장체험) 외.
□ **응모자격:**제주도내 초등학교 3-5학년 재학생
□ **참가인원**: 어린이 45명.학부모 20명(선착순)
□ **선발방법**: 개인. 단체. 지역아동센터 (신청서:본회 양식)
□ **신청방법:** 사)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이메일:sobi114@hanmail.net) 또는
팩스. 방문접수.(제주시 선덕로 3길 5로(연동))
□ **문의사항**: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 (746-5620.747-5620. FAX748-5620)
□ **퀴즈왕 출제범위**
• 신재생에너지 및 기본상식 문제
OX문항 25문항. 즉석 10문항 (관련 도서 사전배부)
• 진행 방법: 45명이 참여하는 화이트보드 이용 골든벨 경연대회
□ **퀴즈왕 시상금**
최우수 1명: 상장 및 부상 200,000원(문화상품권)
우수상 3명: 상장 및 부상 각 150,000원(문화상품권)
장려상 6명: 상장 및 부상 각 100,000원(문화상품권)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주도정 소식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
신고센터: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문의: 728-3051(제주시), 760-2621(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인재 DB 등재 신청 및 추천 안내
○ 기간 : 2019. 5. 1. ~ 7. 31. (3개월)
○ 내용 : 유능한 제주여성 인재를 발굴하여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 보장 · 확대 및 다양성을 강화한 행정 네트워크를 구축
○ 여성인재 활용 범위
· 자문, 심사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임원,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추천
· 개방형직위 · 공모직위 모집 시 추천
○등재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제주여성 인재 등록' 콘텐츠
· 전화(064-710-6553), 팩스(064-710-6519), 이메일(gkstmf00@korea.kr)신청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064-710-6553)

2019 한라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
○ 기 간 : 2019.5.9.~6.27(매주목). 19:00~21:00
○ 장 소 : 한라도서관 강의실
○ 대 상 : 고등학생 및 일반인 50명
○ 강의내용: 호모 사피엔스의 인간학
· 상처와 고통에 관한 의학이야기
· 상처와 고통에 관한 문학이야기
· 상처와 고통에 관한 법학이야기
○ 신청 및 문의: 710-8647(선착순 접수)

김상욱 교수 초청 "북드림 과학수다" 콘서트
○ 일 시 : 2019. 5. 18.(토) 14:00~
○ 장 소 : 한라도서관 시청각실
○ 대 상 : 도민 100명(중학생 이상)
○ 내 용 : 우리 시대의 필수 교양, 양자역학
○ 접수방법 : 홈피 및 전화 접수
-접수일 : 5.2(목) 09시~ 마감시까지
○ 문 의 : 710-8647

서귀포시정 소식

2019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참가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19. 4. 15(월) ~ 5. 17(금)
○ 신청자격 : 관광분야에 관심 있는 모든 청년(만15세 ~ 39세)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운영기간 : 2019. 4월 ~ 7월
○ 주요활동 : 참신하고 실행가능성 높은 서귀포다움의 관광시책 발굴을 위한 과제선정 및 토론, 결과발표 등
○ 참가수당 : 별도 예산범위내 지급
○ 신청방법 : 이메일(e-mail: hoony230@korea.kr), 우편, 방문 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우)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서홍동)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760-2652)

CO2를 줄이기 위한 자전거 수리 센터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9. 5월 ~ 10월
○ 대상 및 인원 : 서귀포시민 / 매월 15대(선착순)
○ 신청기간 : 매월 첫째 주~둘째 주 / 월~화 / 09:00~16:00
○ 수리날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0:00~16:00
○ 수리장소 :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주차장
○ 재 료 비 : 3만원 이상 자부담
○ 운영주관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신청 및 문의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739-5021)

행복드림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19. 4. 29(월) ~ 5. 21(화)
○ 신청대상 :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 모집인원 : 각 기수별 20명 내외 / 총 40명
○ 운영기간 : 2019. 5. 25(토) ~ 8. 24(토) /
매주 토요일 14:00~18:00
※ 단, 현장학습은 평일에 진행됨
○ 운영장소 : 서귀포YWCA회관
○ 교육내용 : 인생설계교육, 재정 및 자산관리, 세금 및 생활법률, 부동산컨설팅 교육 등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sgpoywca@hanmail.net), 팩스(762-1401)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반명함 사진 포함)
○ 접수 및 문의 : 서귀포YWCA (☎ 762-1400)